“번뇌 · 욕망을 깨달음과 선행으로”

■ 법전 스님
조계종 종정

모든 번뇌(煩惱)를 깨달음으로 다듬어 내고
우리들의 욕망을 나눔의 선행(善行)으로 바꿉시다.
오늘 아침 떠오르는 밝은 태양(太陽)이
지혜와 깨달음의 문을 열어 놓았습니다.
그 가운데 번신(飜身)의 대기대용(大機大用)이
있고, 만물(萬物)을 변화시키는 향상(向上)의 일구(一句)가 있으니
모든 번뇌(煩惱)를 깨달음으로 다듬어 내고
우리들의 욕망을 나눔의 선행(善行)으로 바꿉시다.
원(願)은 나와 이웃에게 덕(德)을 입히는 이타적(利他的) 소망이요,
나눔은 내일의 복전(福田)을 일구는 자기 헌신(獻身)입니다.
올해는 용서하는 마음을 실천합시다.
용서는 미운 사람을 받아드리는 자비의 수용이요,
증오와 원한을 사라지게 하는 사랑의 베풂입니다.
올해는 인욕으로 자기를 다스립시다.
분노는 타오르는 불꽃같아 자기를 불태우게 하니,
참고 견디면 백만 가지 장애가 사라질 것입니다.
올해는 두 가지 사랑을 실천합시다.
하나는 착한 것을 사랑하는 일이요,
또 하나는 착하지 않는 것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올해는 부끄러워하고 뉘우치는 마음을 가집시다.
부끄러워하는 것은 자기 허물을 깨닫는 일이요,
뉘우치는 것은 자기 업장을 소멸시키는 일입니다.
오늘 아침 위와 같은 서원(誓願)을 실천하면,
모든 재앙은 사라지고 가문(家門)이 안락(安樂)해 질 것이요,
나라에 덕행(德行)이 가득하면 백성(百姓)이 태평가(太平歌)를 부를 것입니다. 화(禍)와 복(福)은 본래 문(門)이 없으나 스스로 업력(業力)에 따라 부를 뿐입니다.

“진심을 다해 성심성의로 새해를 열어갑시다!”

■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 신년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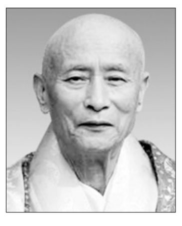
경인년(庚寅年) 희망찬 새해를 맞아 국민 여러분의 평안과 건강을 발원합니다.

지난 해 우리는 어느 해 보다 힘들었던 경제위기, 남북문제, 그리고 우리 사회 내면의 갈등 등 수많은 도전과 시련 속에서도 ‘희망과 서원’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러한 고통과 난관의 극복은 간절한 발원으로 지혜를 구하고, 무상(無常)의 깨달음을 얻어 보리행을 실천할 때만이 그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경인년 새해, 우리는 행복을 참구하는 내면의 간절한 발원을 바탕으로 나와 우리, 나와 사회, 그리고 세상을 향해 소통하고 화합하는 성숙된 문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공동의 선을 위해 노력할 때 우리 사회 곳곳에 ‘관용의 꽃’이 피어나고, 비로소 ‘소통의 물길’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고단한 삶의 연속입니다. 그러나 또한 희망과 행복을 꿈꿀 수 있는 세상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단성무이(丹誠無二; 진심을 다해 성심성의로 일함)의 마음으로 그 꿈을 실현시켜 나가야 합니다. 사바세계의 화평(和平)과 중생계의 안락(安樂)을 위하여 국민 여러분 모두는 간절하면서도 한결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고 발원합시다.

“나보다 남을 배려하는 이타심을”

■ 태고종 총무원장 인공 스님 신년사



새로운 희망과 기대에 찬 경인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한해는 국민생활이 그 어느 해보다도 어렵고 힘든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국민은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많은 성과를 일구어 냈습니다. 특히 세계금융정상회담인 G20정상회의를 유치해 세계무대 중심으로 도약하는 2010년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우리 불교계도 지난해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불교계 주요 종단의 대표자가 새롭게 선출돼 도약과 발전에 새로운 활기를 띠게 됐습니다. 각 종단이 변화와 개혁이라는 기치아래 내실을 다지고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불교문화의 백미로 손꼽히는 ‘영산재’가 유네스코에 등재돼 불교문화가 국제사회에 새롭게 조명 받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불자 여러분! 세계는 지금 변화와 혁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지혜와 자비의 밝은 마음이 바탕이 되고 나보다는 남을 먼저 배려하는 이타심을 내야 할 것입니다.

‘성불하지 못하더라도 중생을 모두 제도하겠다’는 대승보살의 대원력처럼 경인년은 호랑이의 포효하는 기상을 힘차게 펼쳐나가야 하겠습니다. 불자님들 가정에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늘 함께 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삶의 텃밭서 행복의 주인공 되라”

■ 혜초 스님
태고종 종정

어느 때 왕궁 앞을 지나던 요가수행자가 큰소리로 말했다.

“나는 드디어 도를 완성했다. 그 결과 10년 동안 땅속에 갇혀 아무것도 먹지 않아도 죽지 않고 사는 비결도 얻었다.”

그 소리를 들은 임금이 그를 불러 말했다.

“10년 동안 땅속에 묻어놓아도 살아있다면 나라의 절반을 주고 이 궁궐의 절반크기의 궁궐을 지어주리라.”

그렇게 두 사람은 약속을 했고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요가수행자는 땅속에 묻혔다. 10년이 흐른 뒤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 요가수행자를 땅 속에서 꺼내니 놀랍게도 살아있었다.

“대왕이시여. 제가 이제 살아났으니 약속대로 나라의 절반을 주고 궁궐을 지어주십시오.”

그곳을 지나가던 헐벗은 거지가 중얼거렸다.

“덜 떨어진 놈… 10년을 땅 속에 묻혀있어도 살 수 있는 놈이 겨우 땅이나 궁궐을 요구하다니…”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날 때부터 위대한 능력을 스스로 가진 존재입니다. 그것을 확인하고 또 실현하려고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고, 사랑하고, 수행합니다. 그런데 무엇을 바라고 요구하는지 곰곰 생각해보아야 합니다. 스스로 인생의 주인공인데 누구에게 무엇을 바라고 요구하고 있습니까?

능력을 확인하고, 실현하고자 열심히 했으면 결과는 자연스럽게 내게로 돌아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베풀고 나눌 것인가를 궁리해야 합니다. 그것이 참 삶입니다.

새 해부터 각자 삶의 텃밭에서 나의 위대한 가치와 능력을 확인하고 실현하기 위해 공부하고, 일하고, 사랑하고, 수행합시다.

그리고 얻어진 결과를 베풀고 나눕시다. 그러면 저절로 행복해집니다. 행복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내 안의 부처님을 일깨우라”

■ 도용 스님
천태종 종정

내 안에 부처님을 일깨우라.

죄와 복을 비우고 내 안에 부처님을 일깨우라.
봄에는 꽃이 좋고 가을에는 달빛이 좋구나.
여름에는 시원한 바람이요
겨울에는 눈이 아름답도다.
부질없는 생각 말고 일심청정 이룬다면
언제나 좋은 해요, 좋은 날이로다.

無心心中生般若 (무심심중생반야)
無處住心無生住 (무처주심무생주)
無着心住一切處 (무착심주일체처)
無住無心不思議 (무주무심부사의)
무심은 밝은 거울, 지혜롭게 비춰주니
불생불멸 그 세계를 머묾 없이 가는구나.
그 무엇도 집착 없어 허공같이 살아가니
본래 청정 무심자리 해탈열반 그 자리라.

무심의 눈을 뜨라 어떤 아름다움도 볼 수 있다.
마음을 열라 모든 진실을 이해할 수 있다.
힘껏 뛰어라 푸른 꿈이 이루어진다.

“세계의 리더로 우렁찬 사자후를 떨치자”

■ 천태종 총무원장 정산 스님 신년사

경인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해는 우리에게 크나큰 인내를 요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국난극복의 능력과 위기일수록 강해지는 위기극복의 유전자가 있기에 지금의 경제위기도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변화를 맞이해야 할 것입니다. 당면한 위기극복을 넘어 좀 더 긴 호흡으로 미래의 비전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불교가 추구하는 자리이타 사상은 불교의 미래뿐만 아니라 화합을 통한 공동발전이라는 세상의 희망에도 명확한 비전을 제시해 줍니다.

시련이 우리를 더욱 강하게 만드는 연마재가 됐듯,

경인년, 우리 국민 모두 당당히 세상의 리더가 되어 용맹하고도 우렁찬 사자후를 떨치길 기원합니다.

“상생화합의 덕행이 실현되길”

■ 도흔 정사
진각종 종정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각계각층 불자 제현님들의 생활 속에 항상 불은(佛恩)의 가호가 함께 하시기를 지심으로 서원합니다.

불은의 가호(加護)와 광명을 받지 못하고, 무명과 혹업(惑業) 속에 살고 있는 중생세계에는 상극(相極)의 불화가 발생한 갈등과 불행의 병폐로 인하여 국가 사회와 인류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행의 요소를 시급히 제도하기 위하여 경인년 새해에는 우리 모든 불자들이 다같이 합심(合心)하여 다음과 같이 서원덕목을 세우고 실천하여야 하겠습니다.

첫째, 부처님의 교법 실천으로 마음 속에 있는 탐진치 삼독을 제거하고, 용맹정진으로 자비와 지혜를 실천하여야 합니다.

둘째, 내 허물을 낮과 같이 밝게 보는 행자가 되어서 남의 허물은 내 허물의 그림자임을 알고, 먼저 체(體)가 되는 내 허물을 고치어 그 그림자도 자연 발라지게 된다는 진리를 실천해야 합니다.

셋째, 상생화합(相生和合)의 덕행(德行) 실현으로 국가사회가 통합되며, 남북 상호의 이해가 증진되어 평화통일의 숙원성취를 위한 심혈을 기울이며 인류평화를 실현해야 합니다.

우리 모든 불자와 국민은 민족정기와 국운 융성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와 같은 생활불교의 실천철학이 국민과 인류를 평화롭게 하고 지상정토를 이루어서 인류공영이 실현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서원합니다.

“수행공덕이 모두에게 미쳐 만선동귀를”

■ 통리원장 혜정 정사 신년사

경인년 새해, 참회와 서원 그리고 수행과 회향으로 복지구족(福祉具足)한 한해가 되길 서원합니다.

올해는 몸으로 진실한 행을 실천하고, 입으로 진리의 참 뜻을 전하며, 마음으로 부처의 보리심을 일으켜 선악 시비 선후 본말의 인과 이치를 깨달아 우리의 복과 지혜를 키우는 한해가 되길 서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일상의 부족함을 심인의 넓은 마음으로 덮고, 넘침은 회향의 공덕으로 나눠, 하나 된 민족, 하나 된 인류라는 상생의 문화를 이끌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수행공덕이 국가와 인류 모두에게 미치게 하여 만선동귀(萬善同歸)의 가치를 자내증(自內證)하여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번뇌의 허물은 무분별의 지혜로 깨치시기 바랍니다,

경인년 한해, 부처님의 가지력과 자심선행의 공덕이 넘치시길 합장 서원합니다.

“새해 밝은 빛이 모든 중생 깨우치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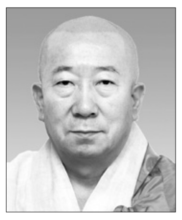
■ 죽산 스님
관음종 종정

元朝佳節到初曉
宇宙森羅盡是光
無思萬思始初心
沙界紅塵氣一塵
又放光明法自在
早光能覺一切衆

새해 아침이 밝아오니
우주 삼라가 온통 광명이로다.
온갖 생각이 초심에서 비롯되고
세상의 먼지도 먼지 하나가 나르는 것이요
광명이 널리 높고 진여의 法 자재함에
밝은 빛이 모든 중생들 깨우침이로다.

“파사현정 기치로 사회역할 다하자”

■ 관음종 총무원장 홍파 스님 신년사



‘지혜와 용맹’의 상징인 호랑이해를 맞이했습니다.

어느 시대든 사람들을 정화시키고 사회를 정진시키는 일은 불교의 몫이었고, 그때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세상을 이끄는 빛이었습니다.

국민 대중은 사회적 소통과 통합을 이루는데 불교계가 많은 역할을 해주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파사현정’의 기치로, 불의와 사악함을 혁파하고 우리 사회를 올곧게 만들어 가는데 불제자들이 한마음 되는 경인년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동체대비의 보살정신 구현하자”

■ 효강 정사
총지종 종령

경인년 새해를 맞이해 불자의 가정에 비로자나부처님의 지혜와 광명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또다시 한 해를 맞이하여 우리 불자들도 시대의 변화에 발맞추어 지금까지의 구태의연한 자세를 버리고 새롭게 태어나야 할 것입니다. 물질 위주의 삭막한 현실 속에서 탐진치에 물든 나 자신을 돌이켜보고 청정한 삶을 영위하여 사회의 모범이 되도록 불자로서의 각오를 새롭게 합시다. 그리하여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나 자신을 정화하고 그러한 정화를 바탕으로 사회를 위하고 민족을 위하고 나아가서는 온 인류를 선도하는 대승적인 참된 불자로 거듭나는 한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물질 위주, 금전만능의 세태라지만 서로가 의지하여 살아가는 중생계의 참 모습을 본다면 우리는 마땅히 아집과 이기심을 벗어버리고 열린 마음을 지녀야 합니다. 차별없는 마음으로 무연대자, 동체대비의 보살정신을 구현할 때에 비로소 진정한 나의 행복과 나의 가정, 나아가서는 사회의 안정과 국가의 평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지혜와 자비가 한층 증진되는 한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가르침 따라 복덕이 구족한 한해 되길”

■ 총지종 통리원장 원송 정사 신년사

힘찬 도약과 불굴의 정신을 표상하는 호랑이해, 경인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본래 무시무종(無始無終)이기에 새해나 지난해나 다를 바 없으나 세간사에 있어서는 지난 잘못을 참회하고 새 마음가짐으로 한 해를 설계하는 것은 필요할 것입니다. 깨달음의 눈으로 본다면 날마다 새로운 날, 날마다 좋은 날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부처님 가르침대로 열심히 정진하고, 보살도를 실천하는 한 해가 되시고, 법신여래의 광명이 항상 하시기를 진심으로 서원합니다. 옴마니반메훔.